

경제

高원화·高유가·高금리 ... 연초부터 '3高 역풍'

지역기업 '수출발목' 잡나

원자재값도 폭등 ... 기업·가계 큰 부담 우려

내수보다는 수출을 주로 하는 A사는 요즘 달러당 원화값 때문에 족을 맞았다.

전남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B사는 폭등하는 원자재 가격 탓에 답답하다.

새해 벽두부터 원화 가치와 유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고(高) 역풍'이 몰아쳐 지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와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低) 수혜'를 본 국내경제가 새해 벽두, 3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산업현장에 다시 먹구름이 일고 있다.

◇원화 강세-달러 환율 상승 판= 지난 8일 원·달러 환율은 1천132원까지 내렸다.

개발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호재에서 악재로 돌아서는 임계점을 달러당 1천100 원으로 보고 있다.

달러당 원화값이 내려가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돼 수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411억5천만달러를 기록,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올해 초 환율이 1천130원대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큰 폭의 경상흑자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유가·금리 '결악재'=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8일 기준으로 배럴당 80.34달러에 거래되면서 8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유가가 가장 낮았던 2월19일(배럴당 40.10달러)에 비해 2배 이상 경증 뚜렷하다.

국내유가 급등에 한파와 폭설이 겹치면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는 15개월이래 최고로 치솟았고 배추와 열무, 시금치, 오이 등 농산물값도 최근 1주일새 2배 이상 폭등했다.

유가 상승은 국내수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증시에도 부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국고채나 양도성에금증서(CD) 등 시중금리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8일 현재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36%이다.

시중금리 상승은 경제·증시 전반의 비용을 높인다.

중소 설·폭설 자금 光銀, 1,500억 지원

광주은행은 "설을 앞두고 자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 특별운전자금' 1천억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폭설피해 기업과 개인에게도 500억원의 '폭설피해 특별자금'을 11월~2월28일까지 긴급지원한다.

'설 특별운전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10억원, '폭설피해 특별자금'은 최고 3억원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2년 새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선정 기념 및 박람회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KJB 여자·수니 적금'을 11월~2011년 말까지 판매한다.

기아차 노조 20년연속 파업

오늘부터 3일간 ... 주말 특근·잔업도 거부

해를 넘겨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기아차 노조가 11일부터 3일간 파업에 들어간다.

10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공장에서의 정의대행위원회 회의 열어 주말 특근에 이어 잔업도 거부하기로 했다.

또 11일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12일 소하리공장, 13일 화성공장에서 각각 주야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파업 결정으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전국 사업장 최초로 파업을 벌일과 동시에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또 잔업과 주말 특근 거부에 따라 'K7', '쏘렌토R', '포르테', '쏘울' 등 기아차 거의 모든 차종 생산이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조의 11차례 파업과 12월 특근 거부 등으로 손실액 2천600여 원, 생산 차질 대수 1만6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은 물론 근로자 장기회피 파업이 계속될 경우, 3월 출시 예정인 스포티지 후속 모델인 SL양산 지연과 광주2공장 쏘울 증산 공사현장에 또다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업 '경영애로 해결사' 노릇 톡톡

광주·전남중기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10개월만에 7천여건 상담

광주·전남중기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이 경영 애로에 처한 기업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중기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비즈니스지원단이 본격 가동된 이후 10개월만에 상담(인터뷰, 전화, 방문)이 7천건을 넘어섰다.

10일 현재 지원받은 기업은 7천여개, 상담 건수는 7천여건에 달한다.

광주·전남중기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10개월만에 7천여건 상담

광주·전남중기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이 경영 애로에 처한 기업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중기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비즈니스지원단이 본격 가동된 이후 10개월만에 상담(인터뷰, 전화, 방문)이 7천건을 넘어섰다.

10일 현재 지원받은 기업은 7천여개, 상담 건수는 7천여건에 달한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advertisement.

수완지구 롯데마트 앞 펠리스타워빌딩 임대. Commercial real estate advertisement.

공장급매. Industri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factory in Gwangju.